손흥민·이강인·김민재…‘완전체 축구 대표팀’ 연승 도전

내일 서울서 튀니지와 평가전
클린스만 감독 “손흥민도 뛴다”
17일에는 베트남과 친선 경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한국 축구대표팀 이강인 등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13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를 상대로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벌인다.

올해 2월 한국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9월 초 웨일스와 경기까지 A매치 3무 2패로 승리를 따내지 못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를 1-0으로 물리치고 한숨을 돌렸다.

대한축구협회가 1992년 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이후 첫 승을 거두기까지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사령탑이라는 꼬리표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붙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물리치고 일단 첫 승을 신고한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10월 A매치 기간에는 튀니지, 베트남(17일)을 연달아 상대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에서 우리나라가 26위, 튀니지는 29위로 비슷하다.

9월 두 번째 A매치 상대였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대비한 경기가 이어지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안컵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고, 북아프리카 국가인 튀니지는 아랍권으로 분류돼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상대할 중동 국가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또 FIFA 랭킹 95위 베트남을 상대로는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수비에 치중하는 팀들을 공략하는 실전 경험을 쌓을 전망이다.

11월에는 2026년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 클린스만호는 아시아 무대를 대비한 경기에 전념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튀니지, 베트남과 경기에는 우리 대표팀이 모처럼 ‘완전체’를 이뤘다.

6월 A매치 기간에는 손흥민(토트넘)의 부상,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군사 훈련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고, 9월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다.

최근 손흥민에 대한 ‘혹사’ 논란이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9일 인터뷰에서 “해외파 선수들의 피로감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손흥민은 소속팀이 유럽클럽 대항전에 못 나가서 덜한 측면이 있다”고 정상적으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강인에 대해서도 “이번 소집에서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충분한 출전 시간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에서 이겼지만 이번 튀니지전 결과 역시 중요하다.

국내 거주 기간과 외국 방송 출연 등 대표팀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로 잠시 잦아들었지만 만일 튀니지전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아시안컵을 앞두고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또 이번 A매치 기간 두 번째 상대 베트남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는 평을 듣는 팀이기 때문에 튀니지전을 그르칠 경우 베트남전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튀니지를 잡아낸다면 베트남전 승리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숨에 3연승까지 내달릴 기회이기도 하다.

튀니지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1승 1무 1패로 탈락했지만, 프랑스를 꺾고 덴마크와 비기는 등 만만치 않은 기량을 선보인 나라다.

카타르 월드컵 때도 대표팀을 이끌었던 잘랄 까디리 감독이 여전히 사령탑을 맡고 있다.

A매치 20골을 넣은 주장 유시프 마사키니(알아라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는 미드필더 야스 샤히리 등이 주요 선수들로 지목된다.

튀니지는 한국과 경기를 마치면 일본으로 이동해 17일 일본과 맞대결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튀니지와 두 차례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벌여 1무 1패를 기록 중이다.

2002년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비겼고, 2014년 서울에서는 0-1로 졌다. /연합뉴스

전국체전 사전경기, 전남 학생부 첫 ‘금메달’

배드민턴 혼복 연서연·박정연
경북 선발팀에 2대 0 승리

경기도 포천에서 화순으로 유학을 온 연서연(화순고)이 104회 전국체전 배드민턴 혼합복식 경기에서 전남 학생부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전남 대표로 출전한 연서연·박정연(전남과학기술고) 조는 지난 10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전국체전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경북 선발팀을 2대 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이날 금메달을 딴 연 선수는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지난해 배드민턴 명문 화순고로 전학을 와 이뤄낸 결실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서연은 올해 2023 울란바토르 동아시아 청소년경기대회 여자복식 1위를 시작으로 네덜란드주니어 오픈 혼합복식 1위, 전국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고등부 혼합복식 1위 등 17개의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고 있다.

연서연은 국가대표 이용대를 배출한 화순군으로 유학 와 화순고 박찬웅 감독과 김명현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다.

연서연은 “이번 금메달은 저를 이끌어 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과학적인 훈련시스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 월드 스타인 안세영처럼 끊임없이 노력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꿈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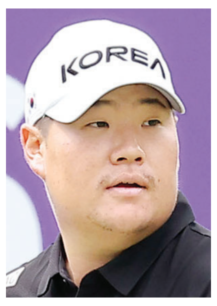
박재현 전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전남교육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연간훈련비 조기 지원, 고가장비 및 임차비 지원 등 학교운동부가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 선수 심리지원 확대 및 훈련장 개선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04회 전국체전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박정연(왼쪽)·연서연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임성재 “다음 목표는 올림픽·메이저 우승”

“항저우 골프 금메달에 행복”
오늘 제네시스 챔피언십 출격



이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임성재(사진)가 올림픽과 메이저 대회 우승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임성재는 11일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지 1주일 정도 됐지만 지금까지도 행복한 기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이달 초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남자 단체전에서 김시우, 조우영, 장유빈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다.

임성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하루 금메달리스트라는 생각에 뿌듯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대해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내년 올림픽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해 메달 경쟁을 하고 싶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또 “올해 메이저 대회 성적이 아쉬웠는데, 내년이나 앞으로 메이저 우승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0년 마스터스 준우승이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인 그는 올해는 4대 메이저 가운데 두 번 컷 탈락했고, 4월 마스터스 공동 16위가 가장 높은 순위였다.

임성재는 12일 개막하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2019년 정상에 올랐다.

그는 “그때 3라운드까지 선두와 7타 차이가 나서 우승 욕심이 거의 없었는데, 전반부터 너무 경기가 잘 풀리고 운도 많이 따라 역전 우승이 가능했다”며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대회”라고 회상했다.

임성재는 올해 5월에는 우리금융챔피언십에서도 5타 차 역전승을 거두며 KPGA 코리안투어에서 2승째를 따냈다.

임성재는 12일 1라운드를 함정우, 김영수와 함께 정오에 시작한다. /연합뉴스

마라톤 2시간35초 키프텀 “파리 올림픽 뛰고 싶다”

2시간00분35초의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인류의 꿈 ‘서브 2’(2시간 이내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36초 차로 다가선 켈빈 키프텀(23·케냐)이 금의환향했다.

신화통신과 AFP는 11일(한국시간) “키프텀이 케냐로 돌아오며 ‘영웅적인 환영’을 받았다”며 “케냐 정부는 키프텀에게 500만 실링(약 4500만원)의 포상금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키프텀은 현지시간 8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시카고 마라톤에서 42.195㎞ 풀코스를 2시간00분35초에 달렸다.

2시간00분35초는 엘리우드 킵초게(38·케냐)가 지난해 9월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종전 기록 2시간01분09초를 34초 당긴 세계 신기록이다.

이제 육상계는 세계 마라톤의 숙원인 ‘서브 2’ 달성 1순위로 키프텀을 꼽는다.

키프텀과 킵초게의 첫 맞대결은 내년 8월 10일 파리 올림픽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파리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는 국가당 최대 2명씩 출전할 수 있다.

키프텀은 “나를 케냐 대표로 뽑아준다면 영광으로 알고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며 “킵초게와 함께 케냐 대표로 뽑히면 더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